

함영주 사법리스크 벗어나… 하나금융, 회장후보 내달 말 윤곽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중징계 취소’ 소송 내달 16일 선고
채용문제 관련 1심 내달 25일 선고
업계, 두 재판 모두 승소전례 있어
법원판결 ‘무죄’ 선고 가능성 무거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법적 리스크 해소여부가 내달 말 결론 날 전망이다. 하나금융 회장 후보로 함 부회장이 유력한 만큼 내달 말께 하나금융 회장 후보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16일 서울행정법원은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의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함 부회장, 내달 말 재판 결론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DLF를 불완전판매했다며 6개월 업무 정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부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하나금융그룹

장에게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2019년 하반기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함 부회장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7일 최종변론에서 하나은행 측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규정하는 투자자 정보 확인서 양식 등을 활용하는 등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하나은행 법규에 맞는 제도를 유지해 왔다”며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완료한 점 등을 들어 함 부회장의 직업선택 기본권을 제한하는 징계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함 부회장은 내달 25일 채용문제와 관련한 1심선고가 예정돼 있다.

◆재판 결과…회장 후보 슛리스트 영향

하나금융의 차기 회장 후보는 내달 말이 돼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최근 하나금융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회장 후보군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함 부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로 유력한 만큼 재판 결론에 따라 슛리스트와 최종 후보군이 달라질 수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두 재판 모두 승소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은 함 부회장과 같은 DLF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내부통제기준

등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사유를 구성한 탓에 대부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게 됐다”고 했다.

채용 관련 함 부회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도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현행법상 채용비리는 처벌하는 법규가 없어서 채용에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해 면접관과 기업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논리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다루고 있는 사안에 대해 처벌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2월 말 결정되는 함 부회장의 재판 결정에 따라 하나금융 회장 후보리스트도 변동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백신 부작용 청소년 의료비 1000만원 지급

교육부, 코로나19 극복 학생 지원방안
심리·신체상해 치료비 최대 600만원

백신접종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 발생
인과성 인정안된 학생에 500만원 지원

정부가 청소년 대상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등 정신건강 심리지원에도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전문가 심리지원과 정신 및 신체상해 치료비로 각각 최대 300만원(총 6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확진 및 완치 학생 7만9000여명(2020년5월 이후 현재까지)을 대상으로 정신과전문의와 연계해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살·자해 시도 등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선 학생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신청해 지원 충족여부 검토 후 최대 600만원 한도로 의료비를

지원토록 했다.

또 정신건강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지원하는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모바일 기반의 24시간 비대면 상담서비스인 ‘청소년 위기문자 상담방(다들어줄게)’도 지속 운영한다.

청소년 백신접종부작용에 대한 의료비도 지급한다. 백신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 반응 등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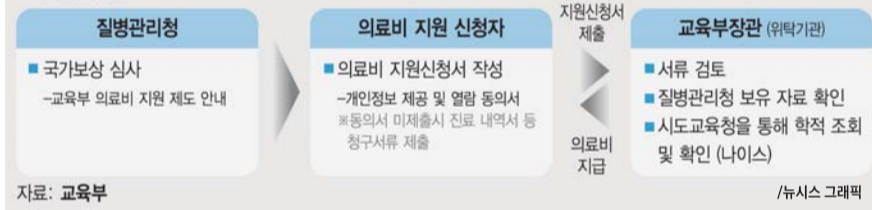
코로나 백신접종 이상반응 학생 건강회복 지원

사업기간 2022년 2월 ~ 2023년 5월

지원대상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으로 인해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자

지급한도 개인별 5백만원 한도 (교육급여 대상자 중 지급 요청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5백만원 한도 내 추가지원)

지원절차



자료: 교육부

/뉴스그래픽

중증 이상 반응은 증상이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이상인 경우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기각’ 결정은 받았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기각 결정을 받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인별 총액 5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등을 지급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추가 5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되, 추후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치료비 지원 예산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온·오프라인 맞춤형 개인쇼핑몰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나만의 맞춤형
개인 쇼핑몰 제공 평생 수익 창출

200여개 흥삼제품
+3만여개 인기상품
+자체상품 등록 판매가능

25년 역사 브레인 TV 방송국소유 핫터그룹

대한홍삼주식회사/㈜핫터라이프 T.010-4480-0045

“화학업계, 소재시장 치열한 경쟁 예상”

» 1면 ‘수업계, 충성없는 친환경’서 계속

포스코는 소재 광물 확보에 역량을 기울이며 국내 대표 철강 기업에서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사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해외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스웨덴 업체 노스볼트는 올해 첫 번째 리튬이온 배터리 셀 생산에 성공했다. 유럽 배터리 회사가 자체적으로 설계·개발해 배터리 셀을 조립한 것은 처음이다. 노스볼트는 유럽에 추가 공장 건설도 계획 중이다. 공격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생산량을 150GWh 이상으로 확대,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 20~25%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업계 관계자는 “각 국가별도 갈수록 강해지는 환경 규제와 보조금으로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며 “화학업계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으로 급성장하는 배터리 소재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완성차 시장은 빠르게 친환경차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럽 18개 국가의 전기차 판매 대수는 17만 6000대로 디젤차(16만대)를 넘어섰다. 이는 전년대비 6% 증가한 것으로 월 기준 사상 최대치다. 국내에서도 전기차 판매는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10만4200대로 2020년 4만6677대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양성운 기자 ysw@